

대학개혁 “더이상 물러날 곳 없다”

100년 동국 백주년
‘동국을 종합 진단한다’

대학도 이제는 생존 경쟁 시대

우리학교는 올해로 건학 100주년을 1년 여 앞두고 있다. 이에 본사에서는 명문사학으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학교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크게 4개 분야로 구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보는 ‘동국을 종합 진단한다’ 장기기획을 준비했다. 편집자

- 1. 학교 정책·행정분야
 - ① 100주년 기념사업 점검
 - ② 대외홍보
 - ③ 조직
 - ④ 재정
- 2. 교육분야
- 3. 연구분야
- 4. 환경분야

“이제 대학 개혁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동국 발전방향 설명회에 참석한 홍기삼(국어국문학) 총장의 말이다. 홍기삼 총장은 이날 자리에서 우리학교 개혁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동국 구성원의 참여와 협조를 강조했다. 이는 비단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실행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 대학사회에 불었던 본격적인 변화의 바람이 올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를 필두로 각 대학들이 입학정원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학과 통폐합에서부터 대학간 통합에 이르기까지 대학들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치열하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어떠한 연유로 급격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일까.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동안 경쟁

의 무풍지대에서 지내왔다. 고학력 편향의 사회구조로 인해 별다른 노력없이 운영이 가능했다. 특히 60년대부터 추진된 산업화 정책은 고급두뇌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급격히 증대시켰고 여기에 자식교육에 대한 열정적인 부모들의 학구열도 한 몫 거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만이 가속화 됐을 뿐 질적 수준의 향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학을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대학설립 허가와 입학정원 증대도 우리나라 대학교육 부실화의 한 원인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이 입학한다는 서울대학교 차 세계100위권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대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대학들이 구태의연한 운영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동안 시대상황은 변화했다. 최근 고교졸업생 숫자보다 대학입학정원 숫자가 많

아졌다. 더 이상 대학은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오는 곳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지방대를 비롯해 정원이 미달되는 학과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대학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고급인력 또한 양성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태백(이십대 대반이 백수)’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많지만 정작 기업들은 채용할 인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가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국제화되면서 대학에 대한 국가의 요구나 사회의 기대는 달라지고 있으며 대학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도와와의 상호존관 계도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대학의 이념도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교육체제 밖의 주변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미래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교육체제를 구안해야 한다. 앞으로 대학은 연구·교수·사회봉사도 일컬어지는 대학의 세

가지 이념을 시대변화에 따라 적절하고 조화롭게 추구해야 할 것이다. 활발한 연구와 교수(敎授) 그리고 봉사를 할 수 있는 대학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또한 사회의 요구에 끌려다니므로써 응용학문의 바탕이 되는 순수학문을 도외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개혁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대학의 미래는 암울하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대학도 지난달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변화기에 들어섰다. 우리 신문은 기본적으로 우리대학의 개혁을 지지하며 앞으로 연재될 ‘동국을 종합 진단한다’ 장기기획을 통해 비판적인 지지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김지희 기자 gazzababo@dongguk.edu



새내기들 모셔요...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비탈소리'가 지난 4일 팔정도에 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있다. 황주상 기자 hjsa228@dongguk.edu

“연구진과 실무진 하나돼 실천지향적 계획 수립”

동국 재도약 목표로 동국백년 마스터플랜 위원회 구성

2006년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 재도약을 목표로 실천지향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국백년 마스터플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21세기 대내·외 환경에 부응하는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및 국제교류 핵심의 장으로써 도약하기 위한 캠퍼스 발전 계획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국백년 마스터플랜 위원회는 산하 연구위원회로 교육·연구혁신분과와 컴퍼스혁신분과를 두고 있다. 이는 연구와 심의의 역할을 분리한 시스템으로서 우선 산하 연구위원회가 연구주제에 관해 결과를 도출하고 동국백년 마스터플랜

위원회는 도출된 연구결과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팀의 관계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획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는 산하 연구위원회에 관련분야의 교수들을 대거 참여시킴으로써 교수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이 공개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확정된 것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학교 측은 산하 연구위원회의 원활한 연구활동 보장을 위해 연구위원회 분과별 사무실을 만해관에 마련하고 한시적으로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동국백년 마스터플랜 위원회(위

원장=홍기삼·국어국문학)의 구체적 역할은 △2020년까지의 단계별 학교 미래상 제시 △산하 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 심의 △단계별 구체적 사업계획 조정 및 확정 등이며, 산하 연구위원회 연구결과를 심의한 작업이 실질적인 제도 시행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 수준의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동국백년 마스터플랜 위원회 산하 연구위원회의 하나인 교육·연구혁신분과(위원장=이상일·토목환경공학)는 교육강화 및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담당하며 주요 연구 내용은 △대학 경쟁력 제고방안 △학문구

조 및 학사제도 개혁 방안 △교육목표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성과 제고 방안 등이다. 또 다른 산하 연구위원회인 컴퍼스혁신분과(위원장=유석천·경영학)는 우리학교 컴퍼스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맡게 되며 주요 연구 내용은 △서울캠퍼스 및 부속 부동산의 장기 종합계획 및 개발 △서울캠퍼스내 합리적인 건물배치에 관한 연구 △신규 매입부지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연구 등이다. 이와 같은 산하 연구위원회는 각 1명씩 임명된 책임연구원의 주도아래 상시적인 연구활동을 하게된다. 동국백년 마스터플랜 위원회는 앞으로 대학 현황 자료분석 및 벤

치마킹,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 비전 및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오는 4월 중순 쯤에 정책 결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구성원 참여 및 공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직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진행됐던 다른 사업처럼 형식적으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백년 마스터플랜 위원회는 또한 오는 5월 8일 개교기념일을 전후해서 비전 선포식을 거행할 계획이다. 그 후에도 동국백년 마스터플랜위원회 사업은 심의와 수정을 거쳐 계속적으로 진행되며 개교 100주년을 맞는 2006년 5월에 확정된 동국백년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 한편 동국백년 마스터플랜 위원회는 오늘 2시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위촉장 수여식 및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희 기자 gazzababo@dongguk.edu

학교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고심 다양한 수익사업 방안 모색

우리학교가 재정확충 방안으로 연구 활성화를 통한 연구기금 확충과 수익사업 추진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행정조직개편 단행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연구처와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별도 법인화 돼 앞으로 외부수익 연구비를 비롯한 연구기금(220억원)은 학교 재정과 분리돼 관리된다. 이는 연구기금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여 연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산학협력단 산하 창업지원단과 산학기술협력센터 또한 재정확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창업지원단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현재 창업지원단은 학교 마크가 새겨진 머그잔, 팬시 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수익사업에서부터 일산 제3캠퍼스 부지를 활용 하는 대규모 수익사업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단기간에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식품산업과 관련해 우왕청심환과 같은 한방성 기능 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창업지원단 관계자는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수익사업 투자가 가능한 재단 산하의 법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국대는 학교 앞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매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와 재단이 수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공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산학협력기술센터에서는 교수들의 특허등록과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사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또한 활발히 진행된다면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www.dgupress.com



동대신문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했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 동대신문을 만나십시오.

e - 동대신문을 클릭하세요!

- 하나, 기사에 대해 날카로운 비평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 둘,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을 '독자투고'란에 올려주세요.
- 셋, '자유게시판'을 독자여러분의 소통창구로 활용해보세요.
- 넷, 좋은 기사거리가 있다면 '보도요청'을 해보세요.
- 다섯, '소나기' '동약광장' '독자사진첩'은 독자 여러분만이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신임 유석천(경영학) 기획처장 인터뷰

“교육강화 예산확보 주력 ‘대학정상화’ 위해 노력할 터”



지난달 신임 기획처장에 유석천(경영학)교수가 취임했다. 중요한 직책을 맡아 마음이 무겁다는 그를 만나 올해 기획처의 사업방향과 업무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대폭적인 행정조직개편 및 인사 이동 등 학교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정상화란 대학다운 대학, 교육이 강화되고 연구가 활성화 되는 대학이 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듯이 우리 학교도 이번 행정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을 슬림화했다. 이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인적재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 시간이 충분치 않아 조금 무리한 점이 있었으나 이러한 변화가 일수록 동국대학교

전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 우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 확충이 시급하다. 이는 학내 구성원을 비롯한 재단 이사진도 공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훌륭한 교수를 충원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특별채용이나 외국인 교수 채용과 같은 교수 채용시스템의 변화를 1학기 내에 확정해 다음 채용부터는 변화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신설된 교무처 산하의 교무기획팀, 교양교육원,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의 부서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강화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교내공모 연구비를 10억 증액하는 등 학교의 연구지원금을 확충했다. 또한 연구처와 산학협력단의 협력을 강화하고 산학협력단을 법인화해 연구와 관련된 외부수탁기금을 학교재정과 분리시켰다. 이는 연구기금과 관련된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 연구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연구 강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교수업적 평가 기준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구조 개혁에 대한 방안은.

=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 개혁에 대한 방안은.

개혁의 골자는 교수총원과 입학정원감축이다. 교수총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고 입학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인 인 감축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대학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지난해 수도권대학특성화 지원사업 탈락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4월에 있을 특성화사업 신청 전에 조금의 인원이더라도 감축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원 입학정원 감축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은.

= 남이 우리를 도와주기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서울캠퍼스, 경주캠퍼스, 일산불교병원, 동국의료원의 재정을 분리시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부분에는 돈을 쓰지 않는 긴축재정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며 이와 함께 발전기금 확충 방안도 고민 중이다. 지금까지는 발전기금 모금이 부진했지만 동국백년 마스터플랜과 같은 장기적이고 비전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한다면 발전기금 모금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교가 관여하는 수익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평가대비 대책마련 필요

2004학년도 학문분야평가 결과 발표

우리학교는 현재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기적인 동국 마스터플랜을 구상하는 등 개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더욱 분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발표된 2004학년도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평가 결과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기계공학 분야를 제외한 생물·생명공학분야와 신문방송·광고홍보학 분야 모두 중하 수준인 ‘인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2004 학문분야평가에서 우리학교가 대상학교로 지정돼 지난 11월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 이후 발표된 것이다. 평가결과는 종합평가의 경우 평가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 우수, 인정, 개선요망으로 순으로 발표했고 평가영역별 결과는 최우수대학, 우수대학으로 분류돼 발표됐다.

우리학교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기계공학분야는 교육목표·교육과정 및 수업 영역, 학생·교육성과 영역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았지만 교수,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의 평가결과가 부진해 종합결과 ‘우수’ 판정을 받았다. 이어 생물·생명공학분야는 교육목표·교육과정 및 수업영역

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으나 그의 3개 분야에서는 우수 미만의 성적을 기록해 종합결과 ‘인정’ 판정을 받았다. 특히 생물·생명공학 분야 대학원은 점수가 가장 낮은 ‘개선요망’ 판정을 받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신문방송·광고홍보학분야 역시 종합결과 ‘인정’ 판정을 받았다. 교육목표·특성화·교육과정·교육방법 분야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을 뿐 나머지 분야인 교수여건·학생복지와 교수연구·교수개발 분야에서 우수 미만의 점수를 얻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는 이번 2004년도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심사평가팀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대외평가 결과를 통보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오는 9월에 실시되는 2005학년도 대학종합평가의 대상학교이며 현재 이를 대비한 예비 보고서 작성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열린’ 도서관 ... 중앙도서관(관장=정진환·교육학)은 만해관 준공에 따라 일부 공간을 재배치하면서 이의 일환으로 중구민들을 위한 별도의 열람실을 마련했다.

김지희 기자 bob83@dongguk.edu

칭찬합시다

① 일만여 자료기증 김주환(지리교육) 교수



첫 번째 주인공은 평생 모아온 서적과 지도, 사진, 시청각자료 등 1만여 점을 중앙도서관에 선뜻 기증한 김주환(지리교육학) 교수이다. 이처럼 재직 중에 자신의 서적과 자료를 대부분을 기증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에 김 교수를 만나 선정 소감과 기증연유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 ‘칭찬합시다’의 첫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은.

= 도서 기증과 같은 사소한 일로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으로 선정돼 쑥스럽다. 오히려 도서를 기증함으로써 책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학생들이나 다른 학내 구성원들이 기증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면 고마울 것 같다.

본사에서는 2006년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내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칭찬합시다’를 기획 연재한다.

— 어떠한 연유로 책과 자료들을 기증하게 됐는지.

= 재직기간에도 책을 기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 또한 이번에 도서관 자료실이 확장되면서 서고가 넓어져 기증이 더욱 좋았던 것 같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밖에 못 보는 책을 도서관에 기증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돼 기쁘다.

연구실과 집의 책장을 채우고도 남는 책이 너무 많아서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도서관에서 보관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어 오히려 고맙다.

— 동국 구성원에게 한마디.

= 재직 중에 기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구성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경우를 계기로 도서관 문화가 보다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학교가 세운 100주년 맞이 100만 장서 보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기증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학교가 아직 잠재된 학교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개개인의 잠재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최민희 기자 mhy705@dongguk.edu

중구민을 위한 ‘글로벌 아카데미’ 협약 조인

김보환 행정대학원장(경향행정학)과 성낙합 중구정장은 지난 21일 홍기삼 총장, 김동학 중구 의회위원장 및 중구 구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 중앙강당에서 글로벌 아카데미 협약조인식을 가졌다.

중구 구민을 위한 글로벌 아카데미는 관학 협력사업으로 우리학교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중구정은 입학생 관리 등 행정업무를 맡아 운영기로 했다.

이날 홍 총장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행정대학원장은 환영사에서 최적의 강사진으로 최

적의 교육서비스를 베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성낙합 중구정장은 중구와 동국대가 여러 분야에서 서로 이익이 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 강좌는 한 학기 총 12주 과정으로 중구청과 우리 학교에서 돌아가며 개최되며 △정 보화 조건하에 사는 양식 △북해 문제와 6자회담 △고객민족의 치안 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가 개설된다.

12주 과정을 마친 입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도서관 소식

지난달 28일 일본 田村圓澄(다무라 엔췌)씨가 우리학교 중앙도서관(관장=정진환·교육학)에 불교학 자료 서적 3,600여권을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현재 중앙도서관 불교학 자료실에 설치돼 있는 ‘전존문고’ 1만 2천 여권에 이어 두 번째 기증이다.

또한 고(故) 조선영 문돈도 국문학 자료 400여권을 도서관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고인이 학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 별세 전 자신의 소장 도서를 우리학교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던 뜻에 따른 것이다.

생활협동조합 모니터링 실시 안내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는 식당을 이용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및 생협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2005년 1학기 모니터링을 실시 합니다. 이에 동국대학교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선정기간 : 2005. 2. 28(월) ~ 2005. 3. 9(수) 17:00
2. 모니터 선정 통보 : 3.10(목) 17:00까지
유선 및 생협 홈페이지
3. 모니터 방법 교육 : 3.11(금) 15:30
4. 실시기간 : 2005. 3.14(월) ~ 2005. 6.30(목) 4개월간
5. 모집인원 : 교원, 직원, 대학원생 각 1명, 학부생 5명
6. 모니터 방법 : 생협에서 지급한 식권으로 시식을 한 후 설문서 제출, 월 1회 모니터회의를 실시함.
7. 모니터 평가내용
가. 조리원 위생상태 평가
나. 조리원, 판매원의 친절도 평가
다. 청결도
라. 식사의 맛과 질
8. 모니터 신청자격 :
가.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1구좌 이상 출자한 조합원
나. 비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가입 후 활동 가능
9. 신청서 접수처 : 생협 사무국(혜화관 1층)
10. 기타 의문사항은 생협 사무국(☎교내 : 2260-8949, 담당자 : 이계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협 복지매장 영업시간 안내

매장명	영업시간			
	주중	토	일	
상	1층 분식	08:30 - 19:30	09:00 - 18:00	09:00 - 18:00
	1층 양식	11:00 - 19:30	11:00 - 18:00	11:00 - 18:00
	2층 학생식당	08:30 - 19:00	10:00 - 14:00	휴무
3층 교직원식당	11:00 - 18:00	11:00 - 13:30		
원	매점	08:30 - 19:30	09:00 - 18:00	09:00 - 18:00
	동국관식당	학생	10:00 - 20:30	휴무
분식	09:00 - 20:00			
그루터기 (동국관 매점)		09:00 - 20:30		
서점	평일	08:30 - 19:00	09:00 - 14:00	휴무
	교재철(3, 9월)	08:00 - 21:00		
다향관 복지매장 (사진관, 기회사, 컴퓨터매장, 잡화점, 문구점, 안경점)		08:30 - 19:00	09:00 - 14:00	휴무
여행사		09:00 - 19:00	10:00 - 14:00	휴무
미용실		09:00 - 19:00	09:00 - 16:00	휴무
아리수 매점		09:00 - 18:00	09:00 - 14:00	휴무
생협사무국, 자판기		09:00 - 18:00	09:00 - 18:00	휴무

동국대학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2005-1학기 동국사랑 음악회 개최

1. 음악회명 : 2005-1학기 동국사랑 수요일음악회
2. 주최 : 학생처, 동대신문사, 교육방송국
3. 일시 및 장소
가. 수요일음악회

일시	장소	프로그램
3월 16일(수) 12:00	중앙도서관	현악 4중주
4월 13일(수) 12:00		바이올린 독주
5월 18일(수) 12:00		피아노 트리오
6월 15일(수) 12:00		첼로 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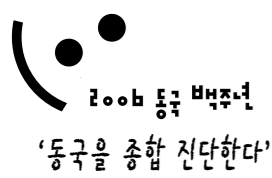
* 음악회 장소와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신입생 및 개강맞이 연주회 :

3월 30일(수) 17:00, 본관 중앙강당

학 생 처

종합기획 1. 학교 정책·행정분야 ①100주년 기념사업점검



전 주체들이 함께하는 100주년 이뤄져야 분위기 조성 필요 ... 주체들의 참여 높이는 방안 고려돼야

우리학교 건학 100주년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뜻 깊은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들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현재 우리학교의 100주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외협력처 내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팀이 전체 프로그램 기획에서 홍보, 운영까지 직접 맡아 진행하고있다. 그동안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기본 사업의 추진 방향을 △역사 △정체성 △미래 △대화합으로 설정하고 학교가 추구하는 차별적 가치와 추진 방향 등을 세웠으며 현재는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단계에 있다. 또한 지난 2003년 정식 기념 사업회로 발족된 이후 연차별로 △2004년 기본사업 계획 수립 및 홍보 △2005년 점검 보완 △2006년 기념사업 추진 및 평가 등을 골자로 오는 5월에 있을 대대적인 100주년 기념사업 발표를 앞두고 사업 기획 및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 부족해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내·외 구성원들 사이에 활발한 분위기를 고무시킬 만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뚜렷한 사업내용 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가시적인 행사의 경우 오는 2006년에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올해는 준비 단계인 점을 감안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사업 계획의 지지부진은 기념사업회의 목표이기도 한 구성원 간 대화합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동안 기념사업회에서는 매학기 기간별 사업 계획을 세우고 기획 분과, 학술자문 위원회 등 각 단위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이와 관련한 행사 등을 기획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행정조직개편 결과 직원의 대부분이 타부서로 이동돼 활동 각 분과 위원회에서부터 계획까지 재조정되고 사업 내용을 다시 처장에게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념사업본부가 별도의 부서로서 본부장이 총괄 업무에 주력했던 것에 반해, 대외협력처장이 100주년사업회도 총괄하고 있어 집중도가 떨어

질 우려도 있다.

전 주체들의 참여 유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전체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00주년 사업은 학교 전 구성원이 준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동문, 교수, 직원 등 각 층의 의견이 반영될 만한 창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법 모색이 시급할 때이다. 이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부터 추진하고있는 총장과 지역동문회원들과의 감담회를 보다 확대해서 동문사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시스템 가동이 급선무다. 또한 학생 참여의 경우, 지난해에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을 도울 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했지만 참여 부족으로 계획이 무산됐다.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다시 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할

예정인 만큼, 더욱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지원과 홍보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수들의 참여에 대해 살펴보면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사업과 연계된 일부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 교수들이 사업의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조언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의 장이 필요할 것이다.

직원들의 참여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리보다 100주년을 한 해 먼저 맞은 고려대에서는 학술분과, 모금분과, 건립분과 등 각 분과의 위원장을 해당 분야 부서의 각급 처장으로 두고 있어 100주년 기념 사업추진팀 뿐만 아니라 학교 전 부서가 100주년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 학교 역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중대환 사안인 만큼 전체 직원들이 함께 100주년 사업에 동참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인 인력 도입 등 고려할 때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유도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을 기획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예산도 문제이다. 현재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외부 스폰서를 구해 도움을 받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어 이 역시 총괄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주년 기념관 건립 계획의 경우에도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타 대학들에서는 1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만큼 우리 학교 역시 100주년을 위한 별도의 기부금 등을 마련해 이를 기념하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돌아오는 건학 100주년은 우리학교 학내 주체들만의 기념 축제를 넘어 학교 전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학내 주체 뿐 아니라 학교에 관심을 두고 있는 외부 인사들, 동문, 재단까지도 함께 힘을 모으고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행사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에 있어서도 관련 전문가를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고 행사 진행 등에 있어서는 외부 에이전시 등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타 대학과는 차별된 우리학교만의 색깔과 역사성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사설

선거 위한 구조적 개선 필요

3월이다.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가 후보자미등록으로 무산됨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시기가 성큼 다가왔다.

총학생회 부재로 등록금 논의와 새터사업 등 학생회 주요사업이 지나쳐 버렸다. 학교 측과 원활한 의사소통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학생들의 대표의견과 학교 행정을 연결시킬 고리도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궐선거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지금 보궐선거에 대한 진행 상황은 어둡기만 하다. 지난 2일부터 보궐선거를 위한 준비를 계획했지만 아직 중앙선관위 모집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통 선거공고부터 후보자접수까지 15일정도 걸린다. 또한 총대 비대위 관계자도 "선거는 3월 말이나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이번 선거 일정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이렇게 선거의 첫 단계, 중앙선관위 모집부터 '삐걱' 거리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 학기 변경된 총장장학제도 변경에 따라 각 단과대 대의원은 물론 총대의원회 의장까지 장학금 지급이 중단됐다.

그 여파에서인지 선거를 준비하는 대의원이 전체 단과대 중에 사범대 한명만 있어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는 중선위를 구성하고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대의원의 수가 줄어들어 중선위 구성이 힘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장학금 지급이 안된다고 대의원 활동을 지원하지 않는 우리학생들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따라서 앞으로 총학 선거를 수월하게 진행시키려면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더욱이 앞으로 동국발전을 전 구성원의 '한마음'이 필요한 만큼 이들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학생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학교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유권자들이 보궐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명실상부한 학생대표기구를 구성하게 급선무다.

우리학교 동문관리 시스템을 알아본다

동문참여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시급

학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학내 3주체가 화합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동문들의 끊임없는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100주년 사업과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동문과 학교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생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동문 관리 프로그램이나 학교 측과 동문회 간의 연계 등이 미진해 타 대학들에 비해 동문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학교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실시하는 동문 초청 모임 등의 행사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숙명여대의 경우는 학교에서 동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동창회와 학교 이사회 간의 총회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졸업 15주년을 맞는 동문 초청 홈 커밍데이 행사, 25주년을 맞는 동문들의 한울제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총동문회에서는 매년 학생대표와 동문회 임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성공관대에서는 한해 평균 2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성균인의 날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선·후배 간의 결연을 통한 장학금 후원 등을 진행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 휴먼 네트워크 런칭 기념행사를 갖고 학생과 동문 각각 100명을 초대해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선배를 직접 만나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성공관대학교 발전기금협력팀 전승호 팀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배들이 연계된 후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동문모임 프로그램 문제와 더불어 동문을 대표하고 있는 총동창회와 뚜렷한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못한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고려대에서는 교우회라는 동문 조직이 마련돼 전체적인 동문 관리 DB를 학교와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동문들이 기부하는 발전기금의 경우도 직접 모금,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고려대에서



는 100주년 기념관 등 여러 기념관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상당부분을 교우회에서 직접 모금한 기부금으로 충당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동문들의 활발한 관심과 참여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 역시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에서는 현재 '숙명사랑.kr'이라는 학교 홈페이지 외에 동문을 대상으로 한 발전기금 모금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현재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 모교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과 애정이 학교 발전에 주춧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제반 프로그램 등이 절실할 때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6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김주관, 부편집장: 김국장, 편집: 김주관, 홍기삼, 김성재, 정경훈, 황주상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68 팩스 (054)770-2067

봄학기 어학 특강

[1차 : 3. 14(월) ~ 4. 15(금), 2차 : 5. 9(월)~]

강좌	원어민 영어회화					중국어	TOEIC 21 신입생 특별 연수반/ 재학생 연수반
	I 단계 개인에 대한 정보, 현재 시제와 같은 단 순한 표현구사 가능.	II 단계 일상적인 대화 및 여 러 가지 주제에 대한 의사 표현 가능.	III 단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 제시를 여러 시제로 표현 가능.	Interview & Presentation Skills	Writing		
인원	각반 15명					각반 30명	
수강료	80,000					65,000	
오전 8:00-8:50 () 휴강일	Irene Venter (월) 강의실 A	Steven Pollitt (금) 강의실 B	Matthew Woodford (수) 강의실 C	Modesato Tumacder (금) 강의실 D	Jennifer Cowe (화) 강의실 E	김윤철 7:00-7:50(중) 8:00-8:50(고) 9:00-9:50(초)	별지 홍보
오후 5:10-6:00 () 휴강일	Curt Hutchison (금) 강의실 A	Roderick Bancroft (월) 강의실 B	Ryan Harvey (수) 강의실 C	David Lasseter (화) 강의실 D	Heather Onderick (화) 강의실 E	김윤철 5:30-6:50(초) (월, 수, 금 80분)	
기간	접수기간 : 3월 4일(금) - 3월 11일(금) 강의기간 : 3월 14일(월) - 4월 15일(금) (주 4일 강의, 중국어 오전 주5일)						
접수	접수위치 : 동국대학교 혜화관(G) 1층 국제교육원 사무실, 문의전화: 2260-3590/3471 근무시간 : 9:00 ~ 17:00 http://today.dongguk.edu						

국제교육원 외국어센터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조성을 위한 협조문

면학분위기 조성 및 쾌적하고 안전한 캠퍼스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경사면 및 주차금지구역 주·정차를 금하여 주십시오.**
경사면과 건물입구 주차금지구역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경사면 주차 시에는 반드시 핸들을 도로 반대편(경계석 쪽)으로 돌리고 주차브레이크를 걸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행 및 주차 시 학내 구성원들의 안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본교 또한 적극 동참하고자합니다. 자율요일제는 학내 구성원 스스로의 적극적인 협조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본교 주차공간의 절대부족, 국제유가 급등 등 내·외적인 주변 환경을 고려하시어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본교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쾌적한 캠퍼스를 만들고자 마련한 중앙도서관 지하주차장은 최대 62대를 주차할 수 있는 편리한 주차공간입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캠퍼스생활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이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학기 중 음식배달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면학분위기 조성,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학기 중 음식배달용 오토바이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들의 무분별한 음식배달로 인하여 경비근무자와 음식배달원 사이에 잦은 마찰이 있는 등 통제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기 중 음식배달을 자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동국 가족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처

정정

지난호(1400호 2월 28일자) 동대신문 5면 2005년도 1학기 신규교수 소개 기사 중 영상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 박상훈 조교수 사진이 잘못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2005년도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 기간 : 2005. 3.11(금) 17시까지
- 장소 : 예비군연대본부(본관2층)
- 대상
가. 2005년 신입생중 학생예비군
나. 2005년 복학한 학생예비군
다. 2005년 편입한 학생예비군
라. 2004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학생예비군
- 준비물
가. 증명사진1장(뒷면에 주민번호 이력기재)
나. 전역증
다. 등록금 납입영수증

* 전입신고기간은 반드시 준수할 것
* 2005년1학기에 휴학할 학생예비군은 전입신고 불허

동국대학교 예비군연대

보리소

군(群) · 중(衆) · 찬(案)

“집승이 셋이면 군(群)이라 하고, 사람이 셋이면 중(衆)이라 하며, 여자가 셋이면 찬(案)이라 한다. 왕은 사냥에서 ‘군’을 잡지 않고, 제후는 ‘중’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왕은 같은 집안의 여자 세 명을 한꺼번에 비빈으로 삼지 않는다. 무릇 ‘찬’은 아름다운 것을 뜻한다. ‘중’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에게로 왔지만, 네가 무슨 덕이 있어서 그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나? 왕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너 같은 소인배의 경우이겠느냐? 소인배가 좋은 것을 갖추면 끝내는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이니라.”

강공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충고의 말이다. 강공은 이를 듣지 않았고,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다. 자기에게 걸맞지 않는 욕심은 화를 자초하게 마련이다.

욕심 낼만한 것을 욕심내고, 버릴만한 것이면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어진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공적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모르는 것을 물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진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물건이나 좋은 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무릇 큰 바다 새와 짐승은 항상 재난을 피할 줄 아는 법이다. 바다에 큰 바람이 불 양이면, 바다 새는 육지로 날아든다. 장문중은 처음 보는 큰 바다 새가 날아들자 도성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공적이 없는데도 제사한 것이고, 모르는데도 물을 줄 모르는 행위였다. 큰 바다 새가 날아든 것은 반드시 그럴만한 이치가 있는 것이다. 과연 그 해에 바다에는 큰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어질지 못하고 무지한 소인배는 많은 물건이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유 훈 우
문과대 철학과 교수

김대중 전대통령이 연초 한 TV방송과의 대답에서 ‘암록강의 기적’을 역설한 바 있다. 한반도가 동북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한강의 기적’에 기반한 남한의 발전만으로는 부족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북한이 이뤄내야 할 ‘암록강의 기적’이 결합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릎을 칠 정도로 한반도의 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 적절한 비유이자 탁견이다.

이 간단 명료한 비유는 우리의 동북아시아 구상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발전을 전제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나아가 동북아 국가들의 공동 번영도 북한의 전향적 합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한 ‘암록강의 기적’ 실현은 북한만의 숙명적 과제가 아니라 남한의 과제, 나아가 동북아 유관국가 공통의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실현 시기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북핵문제는 왜 해결돼야 하는가

‘암록강의 기적’은 당장 북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다. 2002년 10월 2차 위기 발생 이후 오늘날까지 북핵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상적으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조기치’ 발언과 북



김 용 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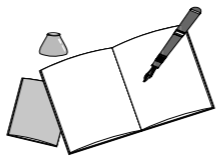
‘암록강의 기적’과

한반도의 미래

한 의무성의 ‘핵무기 보유’ 성명으로 상징되는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미국의 ‘선 핵 폐기’ 요구와 북한의 ‘선 대북 적대시정책 해소’ 요구는 한 길의 양보 없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미간 불신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역학구조는 북·미간 일방의 완전한 승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미

국만큼이나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할 수 없다. 북한의 핵보유시 편익적으로 나타날 동북아의 핵도미노현상, 특히 대만의 핵무장을 중국이 감당한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역으로 미국의 북핵문제 승리를 통한 극단적인 한반도 영향력 확대도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북한체제의 해체와 직결될 수 있는 사태를 남한이 감당할 수도 없다. 결국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문구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개보 : dgupress@dongguk.edu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공간배치 정보 유용해
학생들 모습 담은 기사 부족

지령 1400호 특집을 맞은 동대신문은 동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는 좋은 기사들이 많았다. 특히 ‘동문’ 특집면과 ‘지역’ 특집면은 사회 속 동국대의 지위를 실감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본다.

또한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간배치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준 기사는 정말 유용하고 알찼다. 아쉬운 점은 특집이라는 틀에 맞추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 반영보다는 학교 측의 소개 위주로 기사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신문인만큼 학생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신입생들의 발걸음 점점 끊기고 있는 동아리들을 살리기 위해 매주 한 동아리 씩 소개해주는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취업에만 매달리다 보니 대학의 꽃이었던 동아리는 점점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좀 더 활기찬 대학생활을 위해 동아리 부흥에 동대신문이 앞장 서 주면 좋을 것 같다.

진정한 대학생은 감성과 지성 모두를 발달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 동국인들이 진정한 대학생이 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사들이 동대신문에 가득 하길 기대해 본다.

강은영(사과대 신병3)

꿈을 이루기 위해
‘즐거움’은 잠시 미루자

적직한 겨울이 지나고 개강을 알리는 따스한 봄이 왔다. 방학동안 조용했던 학교가 새로운 그리고 익숙한 얼굴이 어우러져 활기차다.

대학에 처음 온 새내기들은 선배를 쫓아다니며 밥을 얻어 먹고, 이것저것 배우기 위해 한창 바쁠 것이다. 나도 새내기 시절 많은 꿈과 계획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움두사미’ 꼴이 돼버렸다.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의욕으로 넘쳤지만 말이다. 갑자기 얻은 자유에 특별한 계획없이 휴학도 해 보고 대학 3년차를 맞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의 꿈에 걸맞게 능력을 신장시킬만한 일을 하지 못했다.

주제넘은 소리일 수 있지만 후배들에게 ‘계획을 세워보라’고 권하고 싶다. 또 머릿속에 떠다니는 계획보다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계획이 더 나을 것이다. 계획은 물론 현실적인 것이 좋다. 이제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해야 한다. 여러 유혹을 이기고 실천하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

이전에 책에서 “어린아이에게서 성인이 되었을 때 성공할 지 그렇지 못할 지를 알아보려면 콩나물 다듬기를 시켜라”는 부분을 읽은 적이 있다. 여러 어린이들에게 콩나물 다듬기를 시킨다. 일하는 중에 그만 두고 노는 아이와 일을 끝까지 마치고 노는 아이가 있다. 후

자는 쾌락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중에 성공할거라 했던 것이 기억난다.

이렇듯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 잠깐의 즐거움을 뒤로할 수 있는 역설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종규(불교대 불교2)

사적 이득을 위한 정책결정이 부총리 즉각 해직시켜야

위장전입 등을 통한 이현재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이 부총리 스스로 부인 진모씨 명의의 전북 고창 일대를 지역특구로 지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가 주도하는 정책결정이 개인적 이해와 연관된 부분까지 침범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경계를 위해 그가 필요하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 스스로도 사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를 유임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청렴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총리가 추진했던 그간 경제정책 역시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등의 취지를 약화시키거나 연기하는 등 사사건건 부자들의 손을 들어주려고만 했다고 평가된다. 이는 결국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부총리가 주도한 정책이 모두 자신의 재산증식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는 게

명확히 판명됐다고 생각한다.

경제정책의 수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은 치명적인 잘못이다. 특정 지위에 있는 공직자가 자신의 부동산 또는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해야 옳은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정부의 이 부총리 유임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국민들의 공감대 역시 얻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의 사회적 파장을 막기 위해서는 이현재 부총리를 즉시 해직 시켜야 할 것이며 이 부총리 역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본인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김유록(사과대 신병3)

어렵고 불편한 수강신청 개선요청 신경 써 주길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모든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게 된다. 수강신청기간 며칠 전부터 모든 학생들은 각자가 듣고 싶었던 수업, 들어야 하는 수업을 정해서 시간표를 짜는 데 시간을 보낸다.

시간표를 짜다보면 강의 시간들이 여러 시간대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비슷한 시간에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듣고 싶었던 강기가 있어도 다른 강의와 애매하게 시간이 겹쳐서 못 듣게 되는 경우 안타깝다.

미간 일방의 승리는 동북아의 파국적 상황을 끌고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북미간 신뢰회복의 중요성

이제 북·미 양국의 윈-윈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이다. 그것은 북·미간 신뢰회복에서부터 비롯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6자회담 틀 내에서 참가국들은 미국의 북핵 폐기 요구와 북한의 대북적대시정책 해소를 동시에 해결하는 노력을 끈기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북·미 양국이 파국적 상황으로 현 사태를 끌고 가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1994년 1차 북핵위기 해소가 그러했듯이 극한의 대립국면에서 대타협의 장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가 윈-윈게임으로 해결된다면, ‘암록강의 기적’은 보다 현실로 가시화될 것이다. 한반도의 위기가 해소되고 북한판 ‘마살플랜’이 작동하면서 북한은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은 곧 남북한의 정치적 공존과 경제적 공동번영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멸이 아닌 상생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번영의 지름길을 여는 길이 될 것이다. 해방 60년을 맞이하는 지금, 한반도의 미래 설계는 반드시 ‘암록강의 기적’을 염두에 두면서 동북아시아대를 여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문구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개보 : dgupress@dongguk.edu

반대로 어떤 시간대에는 강의가 거의 없어서 공간으로 남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딱 맞는 강의만 있으면 완벽하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금까지 5번의 수강신청을 했는데 매번 전쟁을 치루는 것 같다. 7시 50분부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8시가 되면 프로그램에 접속한다. 하지만 정각 8시에 접속하는 학생들이 많아 로그인하고 창이 뜨기를 기다리는데 2분 많게는 10분도 걸린다.

이 사이에는 내가 들어야 하는 과목들의 인원이 모두 차지 않았을까 조바심이 난다. 다음은 급한데 프로그램이 느려서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접속하고 난 후에도 강의수가 많지 않아서 이미 정원이 다 차버리는 경우도 매우 많다.

어렵게 수강신청을 하고 나서 만족스럽게 끝났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수강신청을 했어도 학교 측에서 ‘전산처리문제도 수강신청이 초과되었으니 대단히 죄송하지만 확인해 보고 정정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오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일은 두 번 겪어봤다.

전체학생들이 느꼈을 불편함은 이밖에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매번 게시판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많은데 만족할만한 조치가 취해진 적은 별로 없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완해서 학생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디은(공과대 건축3)

여학생실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특강개설

취미·교양특강(단기강좌)

학내에서의 공강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보다 신속한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성교육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재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홍보 및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건전한 성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

취업과 진로를 위한 전문특강

취업·진로지도를 효율성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함.



문화활동

전통사찰음식조리강좌

불교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함.

연동8축원문사연대감공모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소중한 분들을 위해 연등을 만들고 축원문(사연)을 써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로 실시함.

송편배우기 & 사랑나누기

추석을 맞아 송편빚기를 익히며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아울러 학생들이 정성껏 만든 송편을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하여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자 함.



도서 및 비디오관람실 운영

바람직한 학생문화생활의 형성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교육도서 제공 및 영상매체를 통한 자율적 진로 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함

상담활동

학내 성폭력 처리기관으로 학내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조치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 상담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성문화 확립에 이바지하고 대학 생활의 어려움과 개인적인 고민관 상담을 통해 보다 나은 대학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함.

홍보활동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여학생실 주최 문화·교육활동 소개와 참여방법 홍보 및 설명. 주소 : http://home.dongguk.edu/user/gender

여학생실 위치

계산관의 공간배치		이용 안내
1층(남녀학생공용)	2층(여학생전용)	E-mail : gender@dongguk.edu 전화 : 2260-3056, 3058
여학생실사무실, 여학생실장실	여학생전용	FAX : 2260-3635
인터넛카페,	휴게실	방문 : 여학생실(계산관 1층)
도서및비디오관람실, 공부방		상담시간 : 월~금 (10:00~16:00)

여 학생 실

제10기
전통사찰음식조리강좌
수강생모집

- ◆ 강 사 : 선재스님 (사찰음식연구가, 가정교육과 객원교수)
- ◆ 교육기간 : 3월 23일 ~ 6월 1일(10회) 매주 수요일 10:00 ~ 13:00
- ◆ 대 상 : 동국인 남녀 누구나 선착순 30명
- ◆ 진행방식 : 이론 + 조리실습 + 시식
- ◆ 교육장소 : 학리관 조리실습실(사범대 1층)
- ◆ 수 강 료 : 70,000원(재료비 포함)
- ◆ 접 수 : 3월 14일(월) ~ 18일(금), 여학생실

문의는 여학생실 (☎ 2260-3058, gender@dongguk.edu)로

여학생실 · 가정교육과

달하나 천강에

우직한 자의 실패와 성공



박문규
공과대 기계공학과 교수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여기저기 대학 새내기들의 즐거운 대화가 들린다. 학생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강의실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마도 가르치는 자만의 특권일 것이다.

3월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학과 학생들에게 반드시 말하고 시작하는 것이 있다. "He who tries can fail but he who hasn't

already has." 다들 쉽게 이해하겠지만 굳이 번역하면 "시도하는 자는 실패할 수 있지만 시도하지 않은 자는 이미 실패한 것이다"라는 말이 되겠다. 특히 공학도들에게는 이 말이 참으로 귀중하다고 생각되어 첫 시간에 이 말을 반드시 전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 실패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패가 무서워서 시도를 안 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도전하는 자는 아름답다고 했듯이, 우리 학생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적으면서 본인이 미국 유학 시절에 경험한 창피했던 일이 생각난다. 대학원 과목 중간시험에서 교수가 Take Home Exam을 주었다. 이 시험은 시험시간에 문제지를 나누어주고 그 다음날 그 시간까지 교수방으로 답안지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책도 찾아볼 수 있으나 다른 학

생들과는 토론하면 안 되고 혼자 해결해야 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그 과목을 같이 들었던 나를 포함한 한국 유학생들은 성적을 잘 받기 위해 한 집에 모여 그 문제의 답에 대해 같이 의견을 나누고 결국 답안을 도출해 모두 A를 받았다.

그런데 같은 강자를 들던 미국 학생들은 혼자 끙끙대면서 이 책 저 책 찾아보고 Take Home Exam의 규정대로 이 시험에 임하는 것이었다. 그 학생들은 결국 우리 때문에 대부분 B를 받았지만 그 학생들이 자신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다는 말을 나에게 해주었다. 성적이 있어서는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앞서 있었지만 인생을 길게 볼 때 누가 승자였을까? 나는 그들에게 아직도 부끄럽다.

미국을 설립한 자들의 그런 태도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잔꾀를 부리지 않으면서 주어진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태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태도이다.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농무 (農舞)

신경림

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숫집에 물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들뿐
치녀애들은 기름집 담벼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킁킁대느니라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럽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베동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깃것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시집 『농무(1975)에서

공허한 관념의 유희로 인해 독자들의 외면을 받던 시적 빈곤의 시대에 민중들의 삶의 실상을 민중적 언어로 노래하는 새로운 시세계를 개척함으로써 우리 시에 활로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경림 시인의 초기 작품이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는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농무나 춘다.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해서 술이라도 마시고 악을 새발 수박에 없다. 결코 낯선 세계가 아니다. 근대화 이행기의 피폐해진 농촌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우리 농민들의 모습이다.

이 작품은 '농무'의 현장을 묘사적으로 보여주다가, '홍명희의 농막정'을 슬쩍 끌어들이므로써 불온한 혁명이라도 꿈꿀 수밖에 없음을 토로한다.

신명은 여기서 비롯된다. 못 생긴 것들은 보기만 해도 즐겁다는 민중들에 대한 진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없는 꿈을 꾸는 데 있다. 보잘 것 없이 초라한 농민들이 모여 날라리를 불고 팔다리를 흔든다. 필자 역시 어린 시절 허비런 광목포장이 둘러친 리사무소 앞마당에서 영화도 보고, 서커스도 보면서 자랐다. 미지의 세계에 대해 꿈도 꾸었다.

강상운
시인·동국문학인회 사무국장

메아리

역사 아노미

▲ "뽕뽕 맞죠?"
어이없는 표정의 사람들과 엉뚱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문구. 이는 최근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웃찾사'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 유행어이다.

개그맨 영어강사 2명이 나와 어느 영어지문을 '콩글리쉬'로 잘못 해석하고 중간중간 '뽕뽕맞다'라는 표현으로 관객들을 웃음바다로 몰고 가는 이 프로그램의 인기는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다.

▲ 어떤 일이 이리도 뽕뽕맞을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는 다행스런 일이며, 원망하기보다는 일본인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라는 일본 어느 우익잡지에 기고한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의 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900년대,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진 일본은 창씨개명과 한글 및 한국어 사용 금지 그리고 종군위안부 등 슬픈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한 한승조 교수. 과연 그의 발언이 얼마나 '뽕뽕 맞

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사, 독도 발언, 종군위안부 문제 등으로 반일감정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한 교수가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쓴 지금의 상황은 일반 사람들에게 당혹감과 엉뚱함을 주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뽕뽕맞은 교수는 "요즘 좌파들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과거사에 대한 여론몰이 식 인민재판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애국자를 매국노로 만들면 별 반을 것"이라고 정치적인 이념공세도 퍼붓고 있다.

▲개인의 소신있는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것과는 '틀린'이 아닌 '다른' 생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일제치하에서 고통 받고 핍박받던 한민족의 아픔을 생각해 보면 한 교수와 같은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한번 더 고민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황주상 편집장
hjs228@dongguk.edu



독자 사진첩



거창! 무렵에 ... 개강을 맞아 학생회관 이쪽 저쪽이 분주하다. '탈' 동아리도 동아리방 리모델링 - 동아리 '탈'의 정기헌(정보관리 05출) (?)! 한창이다.

금주의 식단

	월(3/7)	화(3/8)	수(3/9)	목(3/10)	금(3/11)
동국관	참치찌개 (1800) 제육콩나물볶음 (2000) 삼선적구이 (1800)	설렁탕 (1800) 탕수육 (2000) 닭조림 (2000)	김치순두부국 (2000) 쇠고기볶음밥 (1800) 오징어볶음 (2000)	장터국밥 (1800) 간동기 (2000) 궁중떡볶이 (1800)	바지락수제비 (1800) 간지장밥 (1800) 제육비빔밥 (2000)
상록원	치킨가스 (2500) 쇠고기국밥 (1800) 오징어가스 (1800) 김치볶음밥 (2000)	돈가스 (2500) 꼬치어묵우동 (1800) 제육볶음 (2000) 비빔밥 (1800)	비후가스 (2500) 양지탕 (1800) 리조육 (2000) 짜개떡반 (2000)	돈가스 (2500) 부대찌개 (1800) 치킨볶음밥 (1800) 버섯불고기 (2000)	생선가스 (2500) 감자탕 (1800) 오징어떡볶이 (2000) 스파게티&요양탕 (2000)
교직원	불고기덮밥 (2500) 돈가스 (2500)	오징어덮밥 (2500) 치킨가스 (2500)	제육덮밥 (2500) 생선가스 (2500)	해물덮밥 (2500) 피자돈가스 (2500)	카레라이스 (2000) 비후가스 (2500)
원향	원장찌개 (3200) 떡배기불고기 (3800) 주꾸미콩나물볶음 (3500)	원장찌개 (3200) 버섯전골 (3500) 이면사구이 (3500)	원장찌개 (3200) 돈가스 (3500) 닭조림 (3500)	원장찌개 (3200) 해물찌개 (3800) 불나물비빔밥 (3500)	원장찌개 (3200) 설렁탕 (3500) 베이컨김치볶음밥 (3500)
교직원	어묵김치국 (2000) 부대찌개 (2900) 버몬드카레라이스 (2500) 떡배기제육덮밥 (2900) 사골우거지국 (2500) 유부우동 (2000)	바지락시금치국 (2000) 평양식비빔밥 (2900) 순만두국 (2500) 탕수육&짬뽕 (2900) 참치김치찌개 (2500) 양송이스파게티 (2000)	콩나물국 (2000) 떡배기육개장 (2900) 오무라이스 (2500) 순대찰국볶음 (2900) 칼국수 (2000)	두부원장국 (2000) 원향식국 (2900) 순두부찌개 (2500) 쇠고기집채밥 (2900) 비빔줄면 (1800)	쇠고기배추국 (2000) 떡배기불고기 (2900) 중국식볶음밥 (2500) 미트볼스튜 (2900) 튀김우동 (2000)
교직원	떡배기설렁탕 (3500) 순두부찌개 (5000) 코북어양념구이 (3500)	떡배기갈탕 (3500) 버섯전골 (5000) 보쌈정식 (3500)	떡갈비정식 (3500) 콩나물김치국 (5000) 사골우거지국 (3500)	돌솥비빔밥 (3500) 청국장찌개 (5000) 찰떡비빔볶음밥 (3500)	불낙볶음정식 (3500) 두부함박스테이크 (5000) 돈갈비김치찌개 (3500)

동국대학교 출판부 신간 및 화제의 도서 안내

http://home.dgu.ac.kr/~book
전화 : 02) 2260-3483~4
팩스 : 02) 2268-7851

신간

한국불교전서 (전 14책)

동 편찬위원회/4·6배판/1집 1,120,000원
삼국시대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불교계의 고승 석덕, 명현학자들이 남긴 옛 문헌들을 발굴 수집하여 전 14책으로 출간한 한국불교관계 학술자료의 대총서이다.

불교생태학총서① 불교생태철학

김종욱 저/신국판/25,000원
'연기-공-자비'라는 불교사상의 기본 교리를 '상호 의존성-비실체성-상호존중성'이라는 생태학적 개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불교생태철학의 기초를 수립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부록에는 지금까지의 국내외 불교생태학의 연구 성과를 목록화하여 수록하였다.

현대불교학연구사

J.W.드 응 저/강종원 편역/20,000원
고전어와 현대어를 포괄하여 10개국어 이상의 문헌이 독해 가능했던 불교문화학의 대가 드 응이 로마 시대 이래 서양에서 이어져 온 불교 연구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서술한 이 책은 전문가들에게도 불교학의 모든 분야에 걸친 중요한 연구과제들을 조망해 줄 수 있는 이 분야 최고의 연구사이다.

1분 앉으면 1분 부처

니시지마 와후 저/유키미카 옮김/7,000원
[불교문답]과 [좌선법]을 한글로 번역하여 한 권으로 묶은 것으로 문답으로 배우는 불교, 그림으로 익히는 좌선법이다.

태산심법(胎山心法)

염순재 저/김동일·이태근 옮김/22,000원
의사의 과실로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의학연구로 극

복한 유의(儒醫) 염순재(閔純齋)에 의해 1730년에 지어진 책으로, 이 책에 담긴 이론과 처방은 현대의 임신관리, 태고, 분만, 산후관리 등의 부분에서도 변함없이 실제적 활용가치를 가지고 있어 한의과대학 학생과 임상 한의사는 물론 여성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도 참고가치가 있다.

금궤요략석강(金匱要略釋講)

최달영·김준기·염용하 공저/34,000원
한대(漢代)의 장중경의 저술로 알려진 『금궤요략』은 다양한 질환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의학의 골간을 형성하였고, 우리나라에도 임팩이 『醫方類聚』 등의 저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오늘날 성인병을 비롯한 어려운 난치병의 치료에 접근하는 이론적인 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유문사친(儒門事親)

김창협 저/구봉수·이동원 옮김/30,000원
금원시대의 일가로서 한토하 3명의 치료법을 주창한 장자와 선생의 저작으로 임상가들이나 학생들이 쉽게 읽고 편리하게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번역된 책이다.

역주 농암잡지(譯註 農巖雜識)

김창협 저/오윤원 옮김/20,000원
농암(農巖) 김창협: 1651~1807)이 28세(1678)에서 57세(1707) 사이에 저술한 잡록류(雜錄類)로서, [내편 1(內篇一)] [내편 2(內篇二)] [내편 3(內篇三)] [외편(外篇)] 등 모두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시장사

조병찬 저/신국판/37,000원
저자의 기존 저서들을 확대, 증보하여 상고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시장사의 변천과정을 다루었고, 해방 후 농수산물시장과 생필품시장 부분은 1990년 이후의 격변하는 최근의 시장장세를 연구한 것이다.

범죄생물학

김보환 저/신국판/14,000원
서구에서 이루어진 많은 범죄생물학의 이론적 연구 경향들을 소개하고 유전자, 생화학적 요소들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영상의 발견

마츠모토 토시오 저/유양근 옮김/12,000원
일본의 영상작가인 마츠모토 토시오(松本俊夫)가 펴낸 첫 평론집으로 영화에 대한 관점을 장르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적인 문제로 다루면서 다큐멘터리와 초현실주의의 결합이라는 새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

계몽의 기획

황태연 저/신국판/19,000원
17·18세기에 태동하여 19·20세기에 새로운 세계의 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근대 계몽주의 또는 계몽기획에 관한 연구논문들이다.

일본문학에 나타난 한국 및 한국인상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편/13,000원
일본 문화와 일본 문화를 읽고 이해하고 임기한 일본인 학자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등이 일본 문학에 나타난 한국과 한국인상을 폭넓게 그리고 심도있게 다루었다.

원예·조경식물의 화명

최성범 저/국판/13,000원
조경식물학을 공부 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식물의 화명이다. 식물의 화명을 읽고 이해하고 임기한다는 것은 영어 단어 외우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말하는 식물의 이름들을 향명(馨名)이라고 해서 지방마다 다를 수 있고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르게 부른다.

작품중심의 독일문학사

만프레트 마이 저/임호일 옮김/20,000원

이 책은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독일 문학작품의 맛을 보여준다.

창의화학

박출영 저/4·6배판/20,000원
이 책의 특징은 소제목 및 소초청업, 벤처기업창업, 제조업 창업 등 모던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성 분석·사업 계획서 작성·입지 및 상권 분석 등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였다.

종교사회복지

이혜숙 편저/신국판/16,000원
'종교사회복지'는 현장의 역사가 유구함에 비추어 볼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현실에서 이 책은 기독교계, 불교계, 천주교계 등 각 교단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잘 제시하고 있다.

화제의 도서

북한의 문화와 문예이론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편/15,000원
<북한의 문화와 문예이론>은 북한문학을 규정하는 문화제도와 문예이론을 중심으로, 장르론과 작품론 그리고 연구방법 등 북한의 문화와 문예이론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폭넓게 담아내었다.

동아시아 비교문학의 전망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편/18,000원
최근 관심이 높아진 동아시아 담론을 둘러싼 비교문학 연구의 소중한 성과들을 한데 모았다. 근대 이후 서양문학이 급속히 밀려들면서 뒷전에 밀려나 있던 동아시아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서구적인 근대문학 극복하고자 하는 진지한 모색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연구

황태연·박명호 공저/신국판/20,000원
미국식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의 권력구조와 현실적 작동원리, 운용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 현실에서 전 국민적 정동성에 독립적 기반을 둔 초당적 실권 대통령으로서의 '국가수반'과 의회의 신임 여부에 종속된 당파적 실권 총리로서의 '정부수반'이 분권적으로 공존하는 4년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한다.

불교와 종교철학

김영표 저/신국판/15,000원
종교 현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목표로 하는 종교학의 방법론을 토대로 종교의 철학적 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명을 통하여 불교를 보편적 조망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모색을 시도한 연구이다.

지형학

김주현 저/4·6배판/55,000원
이 책은 전반부에서는 구조지형학과 관련된 분야를, 후반부에서는 기후지형학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분야를 정리하였다.

최신 생명과학

김주필 저/신국판/8,000원
'일반생물학'으로 생물학 전반에 걸쳐 개론적으로 배워 오던 것을 최근의 연구경향에 맞춰 식물부분을 제외하고 Topic Subject를 선정하여 알기 쉽게 개론적으로 정리하였다.

양주동전집(전12책)

신국판/1집 320,000원
무에 양주동 선생의 저서, 논문, 평론, 시문, 역사, 번역안소설, 수필, 콩트, 강연원고 등을 총망라하여 수록한 것으로서 학술적 가치는 물론 생활의 지혜도 담

겨져 있다.

이창배전집(전12책)

신국판/1집 209,000원
저자가 지난 반세기동안 발표한 논문, 저서, 번역서 중에서 후세에 남길만한 것을 골라, 체제와 내용을 현대적 안목으로 수정 보완 재편집한 것으로, 어느것 하나도 그대로 복간한 것 없는 참신한 개정판이다.

일본 메이지문학사

니카무라 미쓰오 저/고재서·김현기 옮김/12,000원
1868~1912년까지 일본현대문학의 태동과 정착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메이지 시대 문학의 독자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니카무라 미쓰오의 『일본 메이지 문학사』이다.

일본 다이쇼문학사

우스이 요시미 저/고재서·김현기 옮김/10,000원
1910~1927년까지의 다이쇼 시대의 문학사를 현장감 있게 기술하여 이 시대의 화려함속에 깃들인 어둠을 보여주는 우스이 요시미의 『일본 다이쇼 문학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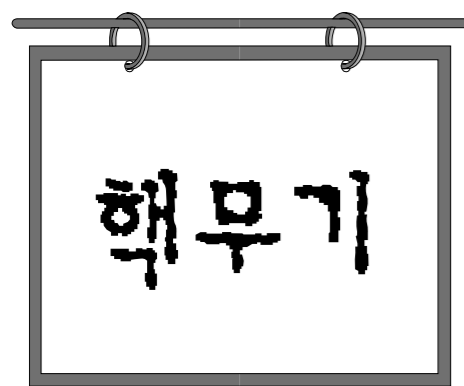
일본 쇼와문학사

히라노 쇼 저/고재서·김현기 옮김/14,000원
1927년 아카타가와 류노스케의 자살에서 패전으로 인한 절망과 재건에 이르는 쇼와 시대의 문학사를 정신사적으로 분석한 히라노 켄의 『일본 쇼와 문학사』이다.

금강 삼대경론(상,하)

원순 저/조홍길·정동규 옮김/17,000원 20,000원
이 책은 중국 남북조시대에서 당(唐)나라 초기까지 중국 불교에서 제기된 공(空)사상·반야(般若)사상·화엄(華嚴)·제가불교(在家佛敎) 등의 모든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 중국, 한국, 일본인들이 전승한 불교 서적 중에서 논이라고 이름 붙여진 유일한 책이다.

이주의 학술 키워드



'이주의 학술 키워드'는 최근 시사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키워드를 선정해 이를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 여러 학문분야와 결합시켜 다양하게 해석해 보는 코너입니다. 키워드 선정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은 동대신문 홈페이지(www.dgupress.com) 자유게시판에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북한은 핵무기가 있을까?

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선 포기 후 협상'이라는 그들의 대 북한외교원칙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 북한 역시 '선 체제 보장(불가침 조약), 후 핵개발 포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 진위판단 기준

'확증이 없는 한 범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형사사법 최고 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즉 핵무기를 북한이 공개하지 않는 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북핵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핵전문가들은 특정기준의 충족여부로 핵무기 보유를 판단한다.

핵무기보유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보유 능력이다. 북한에는 양질의 우라늄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으며, 평산과 박천에는 정련시설이 있다. 이 시설을 거쳐 이산화우라늄이 만들어지면 구성과 영변의 가공공장에 보내져 금속우라늄으로 만들어진다.

이 후, 영변의 핵연료봉 조립공장으로 운반되고, 그 곳에서 핵연료봉이 돼 원자로로 투입된다.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는 플루토늄 추출을 위해 영변의 재처리공장에 보내진다. 이처럼 북한은 우라늄 원광에서 플루토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자금자족 체제가 완비돼있다.

두 번째 기준은 핵시설이 핵무기 제조에 적합한가 하는 것이다. 1992년 IAEA 사찰을 통해 북한은 1986~91년 동안 사찰 없이 가동한 영변의 5MW 원자로나 당시 건설 중이었던 50MW 및 200MW 원자로는 모두가 핵연료순환으로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에 적합한 것이며, 전력생

산에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것이다. 원자로 주변에 송·배전 시설이 부재하다는 점이나 경제적 명분이 없는 재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었다는 점도 유의할만하다.

세 번째 기준은 핵무기의 투발수단이다. 핵폭탄이란 핵폭발 장치에 불과한 것이며, 이것이 군사적 이용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투발수단 확보와 함께 지휘, 통제, 통신, 정보기술이 접합돼야 한다.

다시 말해, 제조된 핵무기는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날려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통해 이미 우수한 투발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은 1983년에 이집트로부터 소련제 Scud-B를 도입하여 역설계 방법으로 자체 생산했고, 현재는 사정거리가 4,300~9,600km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와 함께 새로운 종류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이스라엘, 인도와 함께 세계 6위권에 도달해 있으며, 이로써 핵무기용 투발수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핵무기 보유를 판단하는 네 번째 기준은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핵보유 의지이다. 김일성·김정일 부자는 일찍부터 핵보유를 결심했다는 증거들이 많다.

북한이 1950년대부터 소련의 드브나연구소에 연구원을 파견해 핵기술자들을 양성한 것, 1960년에 방대한 영변 원자력연구기지를 조성하고 첨단 장비들을 가동시킨 것, 다양한 핵과 학자들을 양성한 것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은 경제가 어려워진 80~90년대에 핵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했으며, 제네바합의로 플루토늄 생산이 봉쇄되자 우라늄 농축을 시도한 것도 강력한 핵보유 의지를 대변한다.

북핵 보유 가능성

상기의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결론이 가능하다. 첫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향후 잠재력 역시 국제 핵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남게될 전망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만족할만한 대가를 얻어내면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방안과 만족할만한 대가가 없을 경우 핵개발을 지속해 핵무기의 숫자를 늘리고 성능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북한이 과거 핵시설들을 재가동할 경우 플루토늄 생산능력은 급격히 증가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동결시설을 재가동 한다는 것은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개발을 본격화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한이 가진 재처리 시설, 동기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1992년 이전에 7~22kg의 플

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으로 1~3개의 플루토늄탄을 제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보유를 위해 은밀하게 핵개발을 계속하면서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를 경량화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라늄 농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추정을 위한 증거들이 부족하나, 북한이 아직 핵폭탄 제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이 의도적으로 농축을 추진할 경우 수년 내 새로운 위협원으로 부상할 것이다.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이 농축시설 보유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한 시점은 제네바합의 이후이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대포동 미사일 실험발사, 금창터 의혹 제기 등 북·미 간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었던 1998년일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북한은 아직 다량의 고농축우라늄을 확보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로서는 실험실 규모의 원심분리법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다 큰 농축시설의 보유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대처 방안

현 국제정세에서 미국주도의 세계평화전략에 대한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일련의 반응은 '악의 축'에 대항하는 '선의 축'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보내어왔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악의 축'이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미국의 전쟁 명분이 현저히 설득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미국의 세계평화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는 다르다.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하나다. 북한의 핵개발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개발 포기를 바라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 아무도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 해결이 이라크 전쟁보다 '악의 축'에 대항하는 '선의 축'으로서의 역할, 미국의 신 안보 전략 핵심을 국제사회에 설득시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국으로 보면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전략에 정면 도전하는 '악의 축'이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은 명백하다. 미국도 확실한 동맹국임을 보여주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해 나가야 할 일이다.

최관 객원기자(경찰학 석사과정) choikwan@dongguk.edu

내가 읽은 책 이야기



한용수

문과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바쁜 현대인의 건강 챙기는 실용서

현대는 심한 공해와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누구나 언젠가 한번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염려가 없지 않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현대인은 건강에 관해서는 모두가 주의를 기울인다. 여기 인체의 노폐물을 제거해 주고 원기를 잃지 않게 해 주는 좋은 건강 스프링 책자가 있다고 해서 읽고 직접 체험해 본 후 모든 이에게 권하고 싶어 소개한다.

야채스프 건강법이란 무와 무청 1/4개, 당근과 우엉은 1/2개, 말린 표고버섯 하나를 야채 양 3배의 물을 부어 1시간 동안 끓인 후 야채를 건져내고 유리병에 보관하여 식후 1시간 전 후 아무 때나 200ml씩 하루 3번 복용하는 건강법이다. 야채스프 복용 후 15분에서 30분 후에 현미차를 마셔주면 더욱 효과적인데, 현미차를 만드는 법은 현미 180ml 한 컵을 볶아 1400ml의 끓인 물에 5분 동안 담근 후 따라내고 다시 재탕한다. (재탕량=1,400ml)의 물을 끓인 후 초량한 현미를 다시 넣어 5분 동안 끓인다. 초탕과 재탕을 섞어서 먹는다.



야채스프건강법
다테이키즈 저
임종삼 역
음음사 출판

나는 타고난 체력이 약해 강의 후 집에 가면 일단 잠시 쉬어야 할 만큼 늘 피로를 느껴왔다. 우연히 알게 된 야채스프를 1주일가량 복용 후 피로감이 없어지고 몸은 가벼워 생각이 느껴졌다. 어떤 보약보다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만드는 법 또한 손쉽고 맛도 좋아 권장하고 싶다. 평생 인체의 질병에 관한 연구만을 해왔다는 저자에 따르면 모든 암, 심장, 혈압, 간질환, 당뇨, 신장, 위, 관절 등 거의 모든 인체의 질병 치료에 명약이며 흙에서 자란 뿌리아채와 현미가 가진 영양과 인체에 미치는 유익함이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 한다. 장기 복용 시 숙취를 도와주고, 노인(시력)도 회복되고 세포재생력이 뛰어난 20년은 젊어진다고 한다. 야채스프를 복용하고 적당한 운동과 평안한 마음 상태를 더불어 가진다면 삶이 더 한층 싱그러울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일상이 자동차 매연 등의 환경오염에 심하게 노출되지 않을 수 없으며 섭취하는 음식물에서도 적지 않은 중금속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다. 야채스프는 해독력이 뛰어난 술·담배를 끊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하니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루 3번 마셔두면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하던, 중병이 있던, 또는 늘 피로감으로 몸이 무거운 상황이지만 특별한 치유법이 없는 이에게 반가운 해결책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소개한다. 이것을 복용하면서 몸과 마음이 더불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니 고마운 마음이 절로 우러나는 책이다.

박윤석 객원기자(농학 석사과정) dgupress@dongguk.edu

지금의 북한 핵문제가 있기까지...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미국의 정찰위성과 프랑스 상업위성이 포착한 영변 핵 단지 내 시설들이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비롯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측은 북한이 85년 12월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고도 핵안전협정 체결을 기피한 채 핵개발을 추진해 온 점을 중시, 제33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개막 직전인 89년 9월 비공개 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 체결 의무를 이행토록 촉구했다.

이후 북한 핵문제는 IAEA 회의 때마다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소련 및 동구 공산 국가의 몰락·독일 통일·결프전 등과 같은 급지막한 사태로 인해 국제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결프전이 끝난 후인 91년 4월, 미국의 뉴클리어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이 수년 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국제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당시의 국제정세는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이 타결되고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제네바 회담이 진행되는 등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통해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적 신 데탕트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은 시대착오적인 도전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거센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고 필연적으로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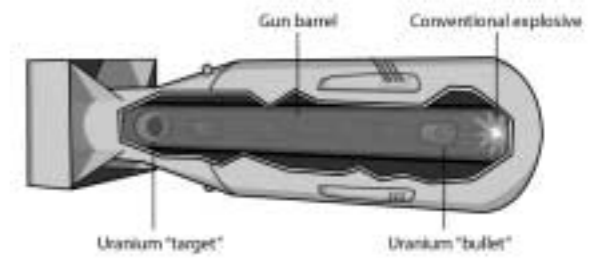
핵무기는 왜 위험한가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원자폭탄(atomic bomb)은 핵폭탄 또는 분열폭탄이라고 한다. 폭약으로는 우라늄(uranium)이나 플루토늄(plutonium)을 사용한다. 천연 우라늄 광석은 대부분 ²³⁸U의 상태로 존재하고 분열하지 않으며, 이를 추출하고 농축한 ²³⁵U를 핵무기의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플루토늄은 원자로 속의 반응을 끝낸 폐기물 중에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²³⁹Pu를 정제 추출한다. 소량의 ²³⁵U는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분열 가능한 임계질량을 넘을 때 분열을 일으키며, 최초의 자발적인 분열에 의해 방출된 중성자는 다른 한 두 개를 분열시키고, 점차 분열핵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연쇄반응(self-sustaining chain reaction)이 나타난다. 분열로 인한 원자가 쪼개지며 질량손실이 일어나는 것으로 아인슈타인의 E=mc²을 통해 질량손실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연쇄반응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다.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은 임계질량보다 적은 두 ²³⁵U 덩어리를 폭탄 내에서 분류해 놓았다가 앞부분의 ²³⁵U(임펄 bullet)을 화약의 폭발로 뒤편의 ²³⁵U(임펄 target)과 합쳐서 임계질량을 넘어서게 만들어 연쇄핵반응을 유도한 폭탄으로 Gun-type Nuclear weapon이라 불린다.



Little boy라고 불리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의 모형(왼쪽)과 내부 모형(오른쪽).



중양도서관 신작도서



모레 (원제 : The Day After Tomorrow)

앨런 폴섬 지음 / 황보석 옮김. 넥서스Books, 2005.

19시 00분, 19시 01분, 19시 02분... 이 짧은 시간의 흐름이 주는 긴박감. 미국, 런던, 프랑스, 베를린과 스위스 등 광범위한 국가들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무수한 인물들과 사건들.

역사의 부활을 꿈꾸는 영웅과 반 영웅 간의 추격전을 다룬 '추방'의 작가 앨런 폴섬의 데뷔작인 '모레 1·2·3'에서는 수백 페이지짜리 책 몇 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방대한 사건들의 연속이 1분 1초의 긴박한 사건과 심리 전개로 펼쳐지고 있어, 복잡하지만 세밀한 스텝러로서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어린 시절 눈앞에서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기억을 갖고 살아가던 미국인 외과의사 오스본은 세미나 차 참석한

낯선 도시에서 우연히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남자를 목격하게 되고, 복수심에 그의 뒤를 쫓는다.

목적을 이루려는 순간 드러나는 낯선 조직의 실체. 연관된 모든 사람들은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노련한 형사 맥비와 함께 그 음모에 접근하지만 낯선 실체는 더욱더 이들을 좌어온다. 그리고 기다리는 섬뜩한 결말.

과거로의 회귀를 통해 현실을 전복하려는 '위버 모르겐'의 실체는,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요즘 과연 소설 속에서만만의 일일까 고개를 숙여거리게 된다.

인문과학실 소장. (823 F671d형)

먹이 (원제 : Prey)

마이클 크라이튼 지음 / 김진준 옮김. 김영사, 2004.

'공공', '주라기 공원', '잃어버린 세계', '스피어', 그리고 '먹이'에 이르기까지 마이클 크라이튼은 최첨단 과학으로 도배된 가까운 현실의 어느 시점에서 인간이 자연을 규율화 해냈다는 오만으로 부딪치게 되는 극단적인 위협상황을 그리고 있다.

10억년의 1m(1mm·나노미터) 원자의 세계를 다루는 나노기술로 새로운 유기체를 창조하는 데 성공한다면?

실리콘 밸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던 책은 실직해서 애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아내가 부사장으로서 있는 의료회사로부터의 긴급채용을 의뢰받고 네바다 주의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연구소로 떠난다. 그의 임무는 연구 중 유출

된 극 미세 로봇 '나노스웸'을 회수하는 일. 이들에게 프로그래밍된 것은 자연 속에서 포식자가 갖는 공격성이다. 창조자인 인간들은 사냥 당한다.

하버드 의대생에서 인류학과를 수석졸업생으로 번신했던 마이클 크라이튼이 내세우는 전문적인 의학기술과 방대한 상상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먹이'에서, 우리는 최첨단 기술로 정복했다고 또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허황된 과학적 신념이 곧 디스토피아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틀림없다.

인문과학실 소장. (823 C928p김)

자료제공=중양도서관 학술정보 관리팀

프랑스 학술공로 훈장 기사장 수여한 유지나 교수를 만나



“문화적 약자들 위해 문화 다양성 운동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터”

손질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유명인사 유지나가 아닌 인간 유지나로서 대중들 앞에 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공로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까지 인정돼 지난달 17일 프랑스 학술공로 훈장 기사장을 받았다. 유 교수를 만나 그간 문화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프랑스 공로 훈장을 수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그동안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학술 대회를 통한 기조연설, 대학 강연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운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하고 있는 스크린 퀴터 문화연대 운동 역시 이러한 문화 다양성 운동에 대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할리우드 영화들이 전 세계의 영화산업을 잠식하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활동을 진행 하기 때문이다.

- 스크린 퀴터 문화연대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가. = 스크린 퀴터를 지켜내겠다는 영화관련 인사들

이 모여 조직한 스크린 퀴터 문화연대 초대 이사장이었던 문성근 씨의 뒤를 이어 2차 이사장 직을 맡고 있다. 현재 스크린 퀴터 문화연대는 각급 영화사 단위로 구성돼 있으며 스크린 퀴터제의 축소 논란이 제시될 때에는 비상대책위 등이 조직돼 대내·외적인 활동까지 함께 펼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을 총괄하면서 국제연대 사업이나 외신 인터뷰, 프로그램의 홍보 등을 진행 중이다.

스�크린 퀴터제는 우리나라에서 할리우드의 영화의 문화 획일주의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미국영화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영화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사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는가.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신조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소수·약자들에 대한 인권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는 교수로서, 또는 여러 단체의 대표로서 명성을 얻고 있지만 그들과 같은 약자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아시아인, 또한 여성이라는 점만으로도 이는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약자들의 경우는 문화적으로도 소외돼 강자들의 문화에만 길들여지기 마련이며 결국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여지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에 더해 영화 제작사인 주식회사 싸이더스의 대표 이사 차승재(44) 씨는 영산대학교원 영화영상학과 부교수에 임명됐다. 이와 관련해 학교측에서는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들의 산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수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 사실상 이렇게 문화적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생각들과 현재 활동 중인 내용에 대해 학생들에게 강의 시간에 모두 전달해 주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나의 이러한 활동을 역할 모델로 삼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자들을 나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갖춘 인재들로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이러한 모든 문화운동들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브라운관에서, 대학 강단에서, 심지어 세계적인 국제학술대회까지, 사회 전 계층을 만나 ‘문화’라는 주제 하나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유지나(영화영상학) 교수. 스크린 퀴터 문화연대 이사장, 각종 언론 매체의 편집위원 등 활발한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녀가 대중과 소통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호주제 폐지 운동 등 사회적으로 소수 약자들의

인물동정

김재형 PD등 본교 교수에 임명



우리학교에서는 지난달 28일 ‘용의 눈물’ ‘여인 천하’ 등 인기 사극을 연출한 프리랜서 드라마 PD 김재형(69) 씨와 연극작가 이만희(50) 씨를 문예창작학과 석좌교수와 조교수로 각각 임명했다. 이에 더해 영화 제작사인 주식회사 싸이더스의 대표 이사 차승재(44) 씨는 영산대학교원 영화영상학과 부교수에 임명됐다. 이와 관련해 학교측에서는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들의 산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애란 동문 산자부 과장 발탁



우리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한애란 동문이 지난 2일 산자부원부 화학표준응용과장에 발탁됐다. 산자부는 이번 임명 배경에 대해 한 동문이 국내 최초로 화학분석기기 성능평가 표준규격을 제정했고, 공산품에 내재해 있는 유해물질 분석 평가 기술을 표준화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번 인사는 산자부원부 내에서는 2번째 여성과장직 임명이며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고수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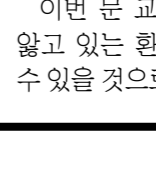


△임현식(반도체화학)=내일(8일)부터 11일까지 일본 동경 NFC 국제 세미나 초청 강연 참석.



△이광관(식품공학)=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산디아고에 미국 화학회 및 학술발표회를 위해 참석.

경주캠 문일수 교수 뇌신경세포 보호물질 개발



우리학교 경주캠퍼스 의학과 신경해부학교실 문일수 교수는 지난달 14일 식품원료로부터 뇌신경세포보호와 기억증진에 효능이 있는 천연추출물을 개발했다. 이번 문 교수의 개발은 뇌졸중과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예방과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국건학 100주년을 함께 하는 사람들

“온기 넘치는 학교 위해 대안 있는 비판 제시할 것”

I 염준근(통계학) 교수회장

우리 학교는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이를 내·외부적으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 진행하고 있어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사업들이 학교의 주인공인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 간의 활발한 의견교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 100주년 기념하는 새로운 도약과 축제의 의미가 강한 탄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100주년 기념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각 주제별 대표자, 혹은 주제를 대신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들을 만나 현재 학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어 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편집자

학교 발전을 위해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충실하는 것이 대학 교수의 과제이자 역할이다. 하지만 교수 역시 자신이 몸 담고 있는 학교의 한 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제시하고 전 구성원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 주체들이 한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건학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학교

교수들의 학교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참여는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염준근(통계학) 교수회장을 만나 이야기해 보았다. - 교수의 대표로서 100주년을 앞둔 지금 학교에 대해 제시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 학교가 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졌다는 점은 그만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의 발전 계획이 현실성 없는 너무 큰 이상으로부터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우리 학교를 보면 100년이라는 숫자를 내세우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한데, 그 이전에 우리학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 학교 주제 간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수, 직원, 학생 뿐만 아니라 동문, 재단까지 학내 전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개혁을 통한 발전도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비로소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조금 더 전 주체들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서로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회가 생긴다면 교수들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뚜렷한 대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학교 발전을 위해 앞으로 교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 그동안 교수회에서는 학교 발전을 위해 학교 측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 비판 해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학교 발전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비판 이전에 대안을 제시해 나갈 수 있는 교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교수 역시도 학교에 중요한 주체로서 모든 구성원이 하나가 돼 웃음꽃이 피는 ‘온기’ 흐르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싶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중구 구민의 웰빙을 위한 첨단 스포츠센터 개관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Chungmu Art Hall Sports Center

프로그램 및 회원접수 안내

수영프로그램 회원 접수 3월 7일(월) - 중구 구민 3월 8일(화) - 타지역 주민 체육프로그램 회원 접수 3월 9일(수) - 중구 구민 3월 10일(목) - 타지역 주민 문의 및 상담 : 02-2230-6703~7 홈페이지 : www.cmah.or.kr

지하철 : 2호선 신당역 1번출구 • 신당사거리 방향 150m • 245호선 동대문 운동장역 출구 • 신당사거리 방향 150m • 6호선 신당역 9번출구 • 동대문운동장 방향 50m 버 : 간선버스(따방) - 142, 147, 203, 302, 371 지선버스(녹색) - 1017, 2012, 2014, 2233 * 신당동 사거리 (충무스퀘어)에서

Table with columns: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명, 분량, 시간, 강사명, 강사소속, 회차, 회차별 비용. Includes sections for Adults, Children, Teens, and Aqua.

Table with columns: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명, 분량, 시간, 강사명, 강사소속, 회차, 회차별 비용. Includes sections for Health, Golf, and Dance.

Table with columns: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명, 분량, 시간, 강사명, 강사소속, 회차, 회차별 비용. Includes sections for Badminton, Tennis, and Table Tennis.

Table with columns: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명, 분량, 시간, 강사명, 강사소속, 회차, 회차별 비용. Includes sections for Yoga, Tai Chi, and Martial Arts.

금세기 가장 진화된 멀티스포츠 센터!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는 동국대학교가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국내 유일, 구에서 대학에 운영 위탁)

연재기획 **환경문화를 말한다**



캠퍼스를 누비는 환경 '천사' 들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요즘, 대학가에도 환경문화가 조성돼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대학인들이 환경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이를 개선해 나가는 활동은 여전히 부진한 편이다. 이에 본사 문화부에서는 대학생들이 주변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분야를 살펴보는 연재 기획을 준비했다.

편집자

- ① 봉사부문
 - 아름다운 가게
 - 대학연합 환경봉사단체
- ② 건축부문
- ③ 미술부문
- ④ 음악부문
- ⑤ 르포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은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UNCHE)의 '인간환경선언' 결의에 따라 환경분야의 국제협력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UN 산하기구로, 국제환경감시·평가 및 환경관련 기술·과학적 업무 등을 담당한다. 한국은 1972년에 가입했으며 UNEP ANGEL(이하 유넵엔젤)은 지난 2001년 UNEP 한국위원회 산하 자원봉사자 모임으로 시작해, 지난해 9월 UNEP 대학생 회원단으로 새롭게 출발한 대학연합환경단체이다.

이에 유넵엔젤 이정인(이화여대 환경3) 회장을 만나 단체 활동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대학 환경문화의 나아갈 길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유넵엔젤의 조직구성과 구성원이 되는 방법은.
= 유넵엔젤 지부는 10명 이상의 한 학교 학생들이 학내에서 활동 가능한 환경프로그램을 기획해 계획서를 제출하고, 중앙운영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현재 170여명의 대학생들이 활동하고 있고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카이스트, 한국외대 지부가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유넵엔젤이 대학연합환경단체로 바뀔 때, 기존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이 자신의 학교 내부적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한 대학들이다. 지금은 이들 6개 대학 회원들이 주축이 돼 중앙운영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속하지 않는 대학생들도 얼마든지 개인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유넵엔젤 내 취미 소모임을 통해 활동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한달에 한 번 있는 중앙행사에 참여하면 된다.

- 유넵엔젤의 활동내용은.
= 먼저 연합단체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전체 정기모임을 갖는다. 정기모임은 총회, 세미나, 환경엔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열린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강변 걷기' 행사를 개최해 회원들이 영등포에서 잠실까지 한강변을 밤새 걸었다. 이는 한강과 주변 역사·환경을 배우고 직접 한강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환경의 날' 캠페인으로 '바다를 살려주세요'라는 주제의 거리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특히 유넵엔젤은 각 대학 지부 내 활동이 주축이 된다. 각 학교별로 학내 환경캠페인이나 행사를 진행해 정기모임 때 활동과정과 결과를 알리고 이에 대해 서로 공유한다. 이화여대의 경우 학생들에게 대안생리대의 장점을 알리고 사용을 권장하며 이를 함께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강대는 학내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에코 맵(Eco map)' 작업을 진행, 학내 생태지도를 작성해 알리기도 했다.

- 활동 중 어려운 점과 이에 대한 대안은.
= 행사 진행 후 '우리끼리만 하는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 캠페인을 하면 학생들이 이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하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대학

내 환경을 지키려는 문화가 좀처럼 자리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우리는 활동을 통해 '바꾸자'는 성급한 목표보다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데에 목표를 둔다. 거리 환경 퍼포먼스나 학내 환경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으면 좋겠다.

- 대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환경보호 방법은.

= 사용한 CD와 이면지를 그냥 버리지 말고 학교차원에서 페CD와 이면지 수거함을 만들어 이를 재활용해보자. 페CD 1톤이면 CD원자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몰라서 그냥 버리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비오는 날 건물 앞에 비치된 우산비닐을 하루 한 개만 사용하는 것도 자원을 쉽게 재활용하는 지혜다.

이렇듯 학내에서도 마음 먹고 조금만 생각하면 아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물건 포장에 표기된 재활용 마크를 확인하고 분리수거 하는 약간의 수고가 우리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잊지 말자.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이정인(이화여대 환경3) 유넵엔젤 회장.

신입생 환영 공연을 준비하는 '극예술연구회'를 찾아

희망찬 대학생활을 공연합니다

요즘 캠퍼스는 매우 활기차다. 학교 각 건물 벽에는 여러 단체·동아리·소모임 등의 신입생 모집 포스터가 부착되었고, 팔정도에는 재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자신이 속한 동아리를 설명하느라 바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학교 중앙동아리 '극예술연구회'는 자신들의 활동을 신입생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신입생 환영공연을 준비해 눈길을 끈다.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후 7시(1회 공연), 토요일 오후 4시, 7시(2회 공연)에 학생회관 5층 소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극예술연구회가 처음 시도하는 장기공연이기도 하다.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작가=김태수)라는 제목의 이번 작품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옥수동 꼭대기에서 서로 의지하며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희망찬 내용이다. 극예술연구회 임정희(기계3) 회장은 "대학생활도 일상생활과 비슷하기 때문에 혼자자 되느냐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되느냐는 스스로 마음먹기에 달렸다"며 "이번 연극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하나가 되는 것의 참 뜻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학 내내 공연을 준비해 온 극예술연구회 회원들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5층 소극장의 열악한 시설, 경제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활동하는 회원들이 적어 기획에서부터 연출, 배우까지 1인 3역을 담당하는 학생도 있다. 군 제대 후 복학해 이번 공연 연출을 담당할 임진규(신방3) 군은 "회원도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동아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로 많이 바뀐 것 같다"며 "우리 극회도 비록 연극을 취미로 생각하고 모인 사람들이지만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극예술연구회 회원들은 연극을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열중해 있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 소극장에서 밤새 무대 설치 작업을 하면서 든든한 우정을 쌓고, 연습이지만 서로의 연기에 푹 빠져 하나가 되기도 한다. 대학생활의 부푼 꿈을 안고 입학한 새내기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선배들이 준비한 열정의 공연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

문화부 dgupress@dongguk.edu



문화캠페인 동국인! 문화인!

대형 재떨이?!

옆에 쓰레기통을 두고도 곧 화분이 들어갈 통에 담배꽂이를 버리고 있다.

장소=민해관 1층 휴게실

사진=최민희 기자

작품 속 인물 대 인물

사랑과 집착



따뜻하지만 잔인하고 주지만 빼앗아가고 너이지만 네 안의 나이다.

이유이면서 조건이고 치정(治定)이면서 식민지이며 탐구인 동시에 염탐이다.

사랑 앞에서 권리는 이렇게 낮 동안의 부귀영화가 사라져 버려 버려지는 것처럼 기울어진다. 첫눈에 반한 사랑, 그 치명적인 유혹의 아픈 대가는 그러므로 치를 수도 피할 수도 또는 무책임하게 빌려서 수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영화 '클로저(Closer)'는 사랑의 본질이 가진 이중성을 무표정하게 비튼다. 엘리스는 사랑에 집착했지만 또한 배신한다. 그녀는 가볍게 왔다가 무겁게 사랑하고 다시 가볍게 회귀한다. 지독한 사랑의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는 엘리스는 댄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한다. "사랑은 만질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 어쩌면 그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잔인한 인물일지도 모른다. 제인 존스라는 이름으로 돌아간 그녀에게 사랑의 추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랑은 말로써 이미 그 시작을 알리고 입을 닫는 순간 목적지에 도달한다. 빛이 우주를 통과하는 속도만큼 크나큰 재빠르게 적응하는 사랑의 시발을 두고 우린 흔히 첫눈에 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엘리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된 사랑이라는 함정에서 즐거워하고 교태를 부리다가 요묘한 그 단어에 천착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사랑하는지도 모른다. 사랑은 매번 새롭고 매번 지루하며 매번 운명으로 다가온다.

여기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사랑이 있다. 그는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에 등장해 좀 더 병적으로 집착한다. 게다가 진정한 사랑은 단 한번 뿐이라고 강조한다. 지독하다. 그런 인우 역시 첫눈에 빠져 들어가서 하나의 러브스토리를 신화처럼 일궈낸다. 이 영화에서 사랑은 잔인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가를 치러야 하는 마땅한 정당성을 지니지도 않는다. 인생의 절벽 아래로 뛰어 내린다 해도 끝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인우에게 태회는 상처된 자기 자신에 다름 아니며, 번지점프를 하듯 운명의 도약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역시 기실은 영화가 가지는 모종의 희망일수 있는 것이다. 인우가 사랑하는 태희가 현빈의 몸을 빌려 환생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관객의 몫이다.

엘리스나 인우와 같이 우리는 울고 웃으며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아슬아슬한 사랑의 곡예에 몸을 맡긴다. 인간의 이중성과 집착이 왜곡된 자기사랑의 모순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스스로가 만들어 낸 환상일 수도 또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점은 참으로 허망하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무척 다행이다. 댄은 이렇게 말한다. "난 이기적이라, 더 행복해지고 싶어"

김윤경 객원기자(영화전공 석사과정) agikongyong@hanmail.net